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8년 4월 15일 화요일 | 제51호 |

이제는 명실상부한 "1등 협력체"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의 기원강 부사장을 비롯한 팀장급 임원들이 본사를 방문했다. 상호우호 증진 즉,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관계 차 방문한 대우조선직원에게 본사 및 생산제품 현장소개와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대우조선의 협력사 방문은 글로벌 탑에 가입되어 있는 수 백 개의 업체 중에서도 11개 업체가 선정된 것이어서 더 의미 깊은 일이다. 선정된 업체는 본사를 비롯해 (주)스타코, 동아밸브 등 굵직 굵직한 업체들이 포함되었다.

대우조선 기원강 부사장은 "글로벌 톱 협력회 회원사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최고의 조선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여 모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회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 사보에서 우리회사는 "유니트 제작에서 상선과 해양 분야 초대형 블록과 모듈 총 조립회사로 성장 중이라는 회사"로 소개됐다.

신입사원 입사

2008년 신 공장 준공과 더불어 향후 회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배이자 새로운 씨앗이 될 신입사원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신입사원들의 사진과 각오를 소개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입사원들의 각오 한 마디〉

본사

• **정재현** : 일을 배울 때 즐기면서 배우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실천하는 '선보인'이 되겠습니다.

• **민병지** : 어떤 일이든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같은 내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지석** :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 날까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 **권남현** : 최고가 되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구영** : 지금 자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기적을 이뤄내겠습니다.

• **방대혁** : 백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한 발 앞서나가는, 실천하는 '선보인'이 되겠습니다.

• **윤은석**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으려면 쉼없이 달릴 것입니다.

• **김혜림** :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 다는 것,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 **김창우** : 최고가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이룩** : 어제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광** : 일을 해야해서 하기보다는 매 순간 신바람나게, 즐기겠습니다.

• **김동길** : 초심을 잊지 않고, 철저한 메모의 학습을 통해 설계부의 '으뜸가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선보유니텍

• **이수진** : 열심히 하지만은 않겠습니다. 더욱 더 잘하겠습니다. 슈퍼 '선보인'이 되는 그 날까지!

• **김재우** : 항상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지훈** :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실천선보인'이 되겠습니다.

• **이석형** : "Carpe Diem", 열심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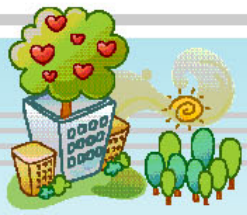
• **김언진** :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식 : 전 세계 바다위에 제 이름이 항해하는 그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창** : 설계는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설계에 제 인생을 'All-In'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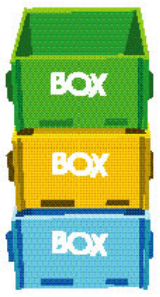
경영혁신 | SB2012

5S 중에서 정돈 에 관한 사항



1. 생산성 향상 (TPS 연관사항)과 직결되는 핵심은 정돈이다.
2. 현장의 정돈수준은 초기 제자리에서 한걸음을 전진하지 않는다.
3. 그 이유가 관리자 및 추진자의 "지식한계"인지 아니면 "의식부족"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하다.
4. 정돈의 논리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지시의 순서상 필요하다. 생각하여 다시 적으면,

▶ 정돈 = 표준화 다
▶ 표준화는 그렇게 하기로 정하는 것
▶ 그렇게를 이렇게



–. 가장 합리적 위치에
–. 가장 바로 쓰기 쉽게
–. 가장 되돌려 놓기 쉽게
–. 관계자 누가 봐도 한 눈에 알게
–. 가장 취급하기 쉬운 형태로
–. 놓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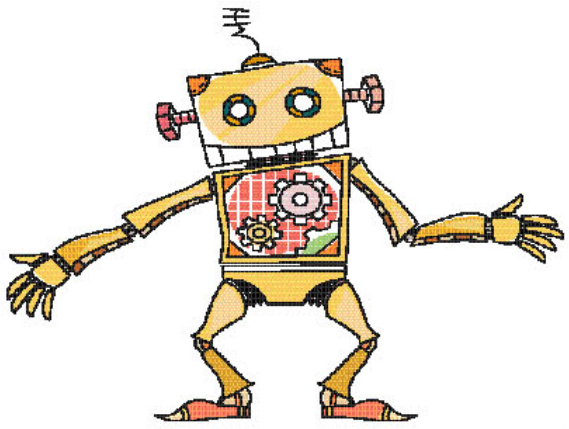
그 대상은
▶ 제1차 지금 바로 쓸 것과 가장 가까운 시간 내 쓸 것 (가까이 두어야 할 것들)
▶ 제2차 다음에 쓸 것과 주기적으로 쓸 것
▶ 제3차 한번 정하면, 이동이 어려운 것 (공장 LAYOUT, 장비 배치 등)
등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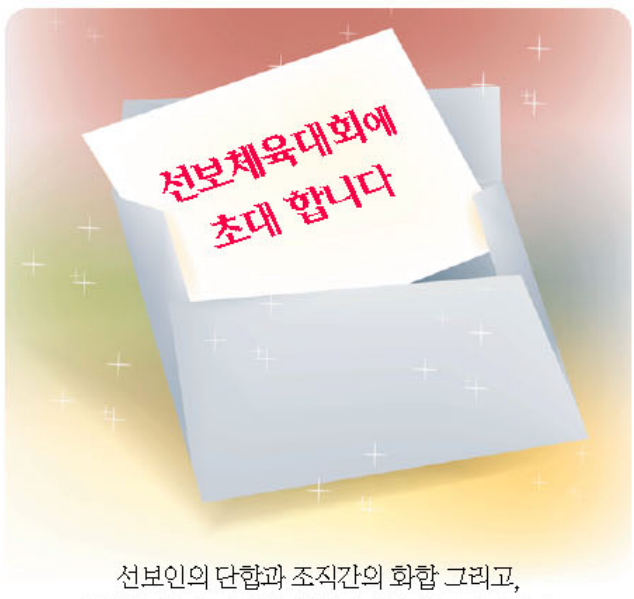
예를 들어 밥상과 로봇트 작업을 볼 때

1. 밥상은 식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한자리 않아서, 손만 움직여 식사를 완료하게 가장 편하게 차려진다.
그리고 장님도 수저, 밥, 국, 간장, 김치 위치를 항상 숙지하여 실수하지 않는다.
2. 로봇트 작업 장점
①24시간 작업(무휴) →해당 무
②효율적 (통상 2배, 당사 기준 4배 이상)
③인건비보다 싸다 →해당 무

이중에서 왜 로봇트는 효율적인가
①동작은 사람보다 느리다
②이중 또는 헛 동작이 ZERO다. (표준 동작만 한다)
③표준 동작은 100% 준비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순서 / 놓인 상태 / 정밀위치 / 제품의 정밀도 등등

→바로 정돈 = 표준화 로 가능하다.





선보인의 단합과 조직간의 화합 그리고,
튼튼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표어아래
아래 일정과 같이 '선보 다선 사우회' 주관으로
선보가족 체육대회를 개최 합니다.
매년 그렇듯이 이번 해에도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 시 : 2008년 4월 26일 09:00 부터 15:00 까지
2) 장 소 : 장림 효림 초등학교
3) 대 상 : 전 선보 임직원 및 가족
선보공업㈜, 선보유니텍㈜ 가족 참석 대 환영
4) 프로그램 (경기종목)
· 주 경기 : 축구, 족구, 피구, 줄다리기, 400계주
· 번외 경기 · 가족 행사 : 링 던지기, 그림 그리기, 윷 놀이

선보유니텍, 선주 감사편지 받아...

우리회사 선보유니텍 박찬일 사원은 선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한 D5294 B101/102/103 구역 E/R TANK TOP UNIT PUMP FOUNDATION & ALINGMENT 검사 수행에 만족하며 선주 COMMENT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를 표한다는 뜻에서 정식 공문 감사 메일을 받았다.

이에 박찬일 사원은 "당시 검사 준비로 설 연휴에도 회사에 나와 PUMP 습합 조정한다고 고생했던 기억과 PUMP 자체 체크 시트를 자세하게 직접 새로 만들어 검사 서류를 작성한다고 힘들었던 점들이 기억난다"며 메일을 받고 나니 새삼 보람이 느껴 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보다 낳은 제품을 납품하고 이로서 회사 이미지 쇄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메일 원문〉

This is to express our gratitude towards the cooperation we have been receiving from your esteemed establishment and specifically from your mr. chan ii park and mr. Bo young kang amongst the others.

Hope this will be a start for a long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in the future.

Best regards.

P.SANGIN
CHIEF ENGR (COMBINED) – U.K.
I.ENG–AMINarEST – U.K.

최홍렬상무의 이 한권의 책

4시간

티모시 페리스[저] 미숙아로 태어나 생존 가능성 10%라는 진단을 받고도 살아남았고,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는데도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했다. 그 뒤 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 스페인어 응용 언어학자이자 정치적 망명 조사관, 타이완 MTV 브레이크 댄서, 태국과 중국의 TV 진행자를 거쳐 사상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미국 산수 챔피언 자리에 오른다. IT 버블기인 2000년 가을에는 스물셋의 나이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햇빛 찬란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가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당하는 비운을 맛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창업한 회사가 한 달에 4만 달러라는 만족스런 수입을 안겨 줬으나,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견디다 못한 그는 회사가 돌아가도록 응급조치만 해 놓고는 해외로 탈출해 유유자적하게 지내며 탱고 기네스 기록을 가진 최초의 미국인이자 상어 떼 사이의 다이버,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활약한다. 이 책 『4시간』은 이런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기업가 과정 초빙 강사로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 강좌에서 선보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이처럼 남다른 그의 이력은 현재 youtube.com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멋들어진 슈퍼카를 시승하며 코멘트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가볼만한 여행지 | 삼랑진

봄날의 삼랑진여행,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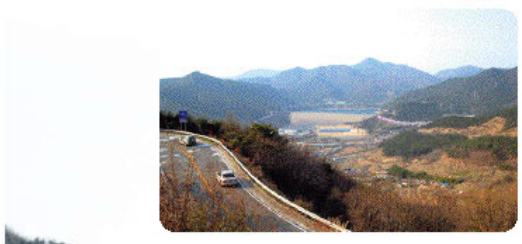
딸기, 벚꽃 그리고 발전소.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제철 딸기가 풍부하게 재배되고,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봄. 지금 이 때에 삼랑진에 가면 세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경을 할 수 있다.

먼저, 삼랑진읍은 딸기의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매년 꽃이 만개할 때쯤이면 딸기 축제가 열린다. 삼랑진 최상품의 딸기를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딸기 축제가 열릴 때쯤이면 길가에 늘어진 벚꽃나무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오염되지 않은 풍경 아래 개나리와 진달래 등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딸기, 벚꽃 길과 함께 양수식 발전처가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말고도 멀지 않은 곳에서 양수식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발전소의 과정들을 눈으로 보며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발전소 홍보관에는 양수발전의 원리, 우수성, 환경관리 등 유용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보며 교육의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발전소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순매원' 이라는 곳이 있다. 원동역 근처에 위치한 그 곳은 벚꽃 길 사이로 기찻길이 뻗어져 있어 꽃길 사이로 기차가 지나가는 경관을 볼 수 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햇볕 좋은 봄날, 도심에서 벗어나 탁 트인 전망과 주변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한 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삼랑진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HTU (HFO TREATMENT UNIT) 납품

우리회사는 지난달 베네주엘라 프로젝트 건으로 HTU 7SETS를 성공적으로 납품하였다. HTU는 이동식 발전설비로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설비를 갖추기 힘든 세계각지의 오지지역에 육상운반으로 기존의 설비를 그대로 재설치가 가능하여 PLANT 설비 공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한 자가 발전 시스템 이다.

HTU는 디젤엔진 3~4 세트로 구성된 PPS(PACKAGED POWER STATION)과 배의 기관실중 PURIFIER ROOM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HTU의 가장 큰 특징은 컨테이너에 모든 설비를 넣어 제작되어 운반 및 설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협력업체 탐방

조선기자재업체의 '자부심' 으로
품질 우선, A/S '제로화'

삼건세기

1989년 설립된 삼건세기는 김해에 본사 외에 4군데에 각각 분포되어 있으며, 총 1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는 물과 관련된 기자재, 그 중에서도 폴리코팅파이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폴리코팅파이프는 완성된 제품의 부식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배관 내 폴리 코팅을 할 경우 반영구적일만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청수 압력탱크와 자외선 살균기, 경수 화장치 겸 여과기 등을 선보에 납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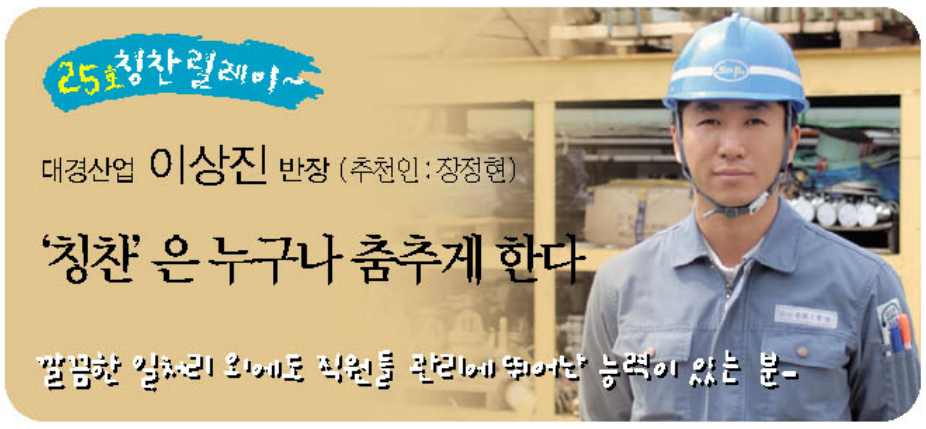
삼건세기 강정일 대표이사는 "선보와의 작은 거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와 거래를 시작했다. 주로 납품하는 것은 폴리코팅파이프였는데, 이것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기존에 하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선보와의 거래는 공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A/S 'ZERO'의 신화

삼건세기는 기자재, 제품 등을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의 품질은 물론 으뜸이다. 비용은 관계없이 품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표이사의 이념아래 삼건세기의 폴리코팅파이프 등 제품의 A/S는 기적의 '제로' 를 자랑한다. 폴리코팅파이프와 페인트가 잘 벗겨지지 않게 융화가 뛰어난 덕분이다.

강정일 대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모범, 시스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초기 폴리코팅파이프의 품질이 우수해야 많은 생산과 납품을 할 수 있다. 초기에 선보가 제품을 많이 사용해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올해 연매출 338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정일 대표는 "선보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지금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도 동반발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항상 변함없이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25호 칭찬릴레이

대경산업 이상진 반장 (추천인 : 장정현)

'칭찬'은 누구나 춤추게 한다

깔끔한 일처리 외에도 직원들 관리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

칭찬릴레이 25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우선 기쁘다, 칭찬해주셔서 영광이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우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더 앞서요. 특히 선보 유니텍에는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아서 '연륜이 저런 거구나' 느낄 만큼 노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 전에 제가 받게 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우선 저를 칭찬해주신 장정현 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도 아닌데 지난달 사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는데 그 분들께도 감사해요. 서로의 일이 너무 바빠서 사적인 얘기를 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축하 한다', '수고했다' 라는 주변 분들의 한 마디로 일하는 데 힘이 났어요.

평소 어떤 마음자세로 근무하세요?

제가 선보에서 일한 5년 반동안 자체 Q/A검사와 더불어 타조선소에 제품을 점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선보와 타조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했어요. 물건 출하 전에 상대방의 코멘트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확인해요. 특히 마지막 페인트 작업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요.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물건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줄 수 있죠.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만족과 불만족을 오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 혼자만 제품의 품질 면이나 전체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자신이 검사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죠. 그래야 작업과 서로간의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게다가 일할 때 팀에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그 패기도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같아요. 동료들이 함께 잘 해줘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6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저보다 먼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대경산업의 양정수 반장님이세요. 선보유니텍에서 양정수 반장님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분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물론, 일할 때 가장 중요한 팀워크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야말로 솔선수범의 대가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여서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일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웃음 잃지 않기를 바래요.

축하합니다

본사 공장

생일

생산관리
최재호(4/29)

생산부
최성현(4/2)
최근돌(4/4)
이광일(4/11)
김오석(4/12)
손성훈(4/14)
이준우(4/27)
배기동(4/28)

생산부(순해)
최대현(4/8)

생산부(유성)
강재현(4/26)

설계부
박문염(4/27)

임원
최홍렬(4/17)

품질보증부
최홍민(4/20)
이혜자(4/20)

입사기념일

구매부
박재홍(4/2)

생산1팀
강동주(4/19)

생산2팀
김기주(4/1)

생산3팀
김진삼(4/21)

생산관리
장기봉(4/16)
임영삼(4/30)

생산부
권두철(4/1)
김유성(4/2)
이강모(4/2)
정차균(4/19)

설계부
최우호(4/1)

영업부
박종혁(4/2)

자재운영
조경선(4/1)

품질보증
이현우(4/1)
백승모(4/1)
이창면(4/2)

칭찬 릴레이 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댁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생생 현장의 소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1

선보하이텍 김덕현

지난해에 모범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상을 받고 난 후 주위의 반응은?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었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저보다 고생하고 노력한 직 원들도 많은데, 이런 큰상을 받게 되어 동료들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이 앞서요.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제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보에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는지, 어떠한 계기로 입사하게 된 건지?

2002년 5월에 입사해서, 5년 11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어느덧 선보에 입사한지도 곧 6년이 되요. 선보공업 목포 공장에서 먼저 근무하시던 분의 소개로 선보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6년 동안 선보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아직도 배워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좀 더 부족함을 채워가야죠.

주로 하는 업무는? 평소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주로 하는 업무는 사급자재와 납품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일할 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평소에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평소 선보에서 일하는 동안 동료들 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게 가장 아쉬웠어요.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같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소를 배려해야할 때가 많은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든 점도 많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어 하는 것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앞으로 선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결여된 것 같아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웃음 잃지 않기를 바라요.

HTTP://www.SUNBOIND.CO.KR 선보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제작·편집 _ 안정빈 과장, 박지영 기자 사진 _ 안정빈 과장 배포 _ 윤강재 과장 인쇄 _ P&J(051-264-3636)